
규방문화 침선구의 조형성을 활용한 장신구 작품 연구

이재호*, 박승철**

A Study on Personal Ornaments Arts by utiliz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wing Kits of Gybang Culture

Jae-Ho Lee*, Seung Chul Park**

요 약 인류는 끊임없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창조적으로 유지되고 발달되어 왔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명적 발전과 더불어 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조형성 추구 등 문화적 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규방용품은 지극히 여성적이고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며 한 문화, 예술의 한 장르로서도 평가 되고 있다.

규방공예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이고 독특한 조형미를 형성되어 있으며, 여인들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침선구는 연인들의 희·노·애·락 속에서 삶의 모습과 정신세계가 문화적 깊이를 갖는 예술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여인들의 시대적 삶의 바탕으로 동고동락했던 침선구의 조형적 이미지, 융합적 결합 및 조화를 통한 장신구로 연관하여 재현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 의도하여 출발 그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코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인의 체취와 정신적 염원이 담긴 규방용품 중 침선구 중심으로 그 특성과 조형성, 융합적 조화, 단아함, 섬세함, 미적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전통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미적 가치를 장신구로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규방문화, 융합, 조형성

Abstract Human beings were constantly developing and using tools. This implies the history of humans have been creatively maintained and developed. Humans put its utmost efforts to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to lead better life at the same time constantly pursuit to the cultural development such as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 the satisfaction of aesthetic needs.

Gyubang crafts are regarded as extremely feminine and contained emotions of Korea while being classified as a genre of Korean culture & art. Gyubang crafts were created independent & unique formative beauty on the basis of then social, cultural, religious background, in which those sewing kits being called friends of ladies express the emotion of arts contains cultural depth of its appearance of life as well as its spiritual world of happiness, anger, sorrow and pleasure of ladies.

And it was aimed to sought the possibilities to start itself in various ways under the assumption capable to be expressed detail & contemporary taste of the sewing kits that lived together with the ladies in their historic life through linking with ornaments arts with convergence and harmony of formative image.

As stated, it could be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harmony of convergence, elegance, delicacy, aesthetic beauty focused on sewing kits among Gyubang crafts filled with ladies' scant and spiritual hope and to be re-understood the excellence and the aesthetic beauty of traditional culture & arts through personal ornaments.

Key Words : Gyubang Culture, Sewing Kits, convergence, formative characteristics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논문접수: 2012년 7월 3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8월 21일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대의 문화는 그 나뉠의 예술을 만들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시대적 미감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하고 이해하며 친밀감을 갖게 하는 근원이야말로 '전통' 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바깥 외출을 금지할 정도로 사회적 활동이 철저히 제한되었으며, 단지 가정에서 내혼서를 중심으로 유교정신에 입각한 가정내법절과 문자를 배우고 가사기술을 배우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여인들은 규방에 모여 바느질과 자수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규방문화"는 자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규방문화는 여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문화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산업화, 기계화된 사회에서 바느질이 여성의 노동 밖으로 밀려났지만 자급자족 경제체제인 조선시대에 있어서 침선은 여성의 절대적 영역이었다.

이에 본인은 여인들의 애뜻한 정감이 깃들인 침선도구와 소품들이 사라져가는 데 대한 아쉬움에서 규방문화고찰을 통해 침선도구의 종류와 조형적인 형태감, 공간감, 선의 비례, 면의 조합, 좌우대칭, 비대칭 등 실질적인 조형성과, 은, 동, 천연보석 등 융합적 결합과 조화를 미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착용이 가능한 단아함, 섬세함 서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여 현 시대에 재해석하고 응용하여 현대인의 공감 할 수 있는 장신구로 표현하고자 한다.

2. 규방문화와 침선구의 일반적 고찰

2.1 규방문화

규방문화라 하면 남녀유별의 관념이 일상을 규제했던 조선시대에 여성의 공간인 규방에서 형성되고 향유된 문화를 일컫는다.

여성들만의 공간인 규방은 조선시대 유교사상의 가부장적 제도에 남녀유별의 관념에서 생겨 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다. 규방은 여인들의 독립된 거주 공간으로 주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여인들은 가족을 위한 살림살이를 비롯하

여 대부분의 삶을 이곳에서 영위하였다.

규방에서 여인들이 일상을 구성하고 즐기며 만들어간 모든 것들을 규방문화라 하는데 거기에서 음식문화, 공예문화, 복식문화, 등 의식주를 중심으로 소설도서와 창작, 규방가사 향유와 창작, 놀이문화 등 다양하고 폭 넓은 문화들을 볼 수 있다.

2.2 여인의 생활상

조선시대 사회의 남녀 관계는 17세기 이후 성리학의 지배이념이 확고하게 성립되면서 반전된다. 이후 조선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강요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열악해진다.

특히 결혼이 시집살이를 강요하는 형태로 변모하자 여성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 진출은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전통 사회의 결혼은 임신, 출산, 양육, 가사노동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에 따른 시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무 사항은 여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회 활동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이 성립된 후의 조선시대 여성은 일반적으로 방앗을 쓰거나 장옷을 입고 얼굴만 조금 내민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여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억압된 삶을 살았으며, 스스로 하는 가운데서 긍지를 지켜온 여인들의 규방 즉 내당의 생활은 비록 폐쇄적이긴 했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도 삶의 희노애락이 주어졌고 몇몇 지적인 배움이 있었던 여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인들의 창조적인 에너지는 바느질이나 자수를 통해 표출될 수 있었다.

이렇듯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가족들에게 정성과 염원이 흠뻑 담긴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데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모습이 여인들의 참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다.

2.3 침선구

2.3.1 바느질의 역사

바느질은 인류의 생활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인류가 최초로 의복을 몸에 걸치기 시작하였을 시기에는 자연 상태에서 짐승의 가죽이나 털, 식물의 껍질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바느질 해 입었을 것이다. 그러다 점차 꿰매는 도구인 바늘과 실을 갖추게 되면서 바느질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된 바느질 관련 유물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바늘과 가락바

퀴이다. 그리고 2600년 이전의 유물로 추정되는 지물의 파편과 실이 꿰어진 바늘이 발굴되어 그 이전부터 바느질이 행해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침선 양식이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며 신라 선덕왕 3년(634)에 세운 분황사 석탑에서는 금속제 바늘과 침통 및 가위가 출토되었다. 또한 『신당서(新唐書)』에는 신라에서 머들고리를 음식용 그릇이나 옷고리, 받질고리로도 썼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 유리왕 때도 여자 아이에게 바느질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조선시대 영조 때 지어진 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에는 "열 살이되면 여자는 실과 골무를 다스리며 베와 비단을 짜고 곱고 가는 끈이나 굵은 실을 꼬며 여자의 일을 배워서 의복을 만들어 바치게 한다."고 여자가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2.3.2 침선구의 종류

예로부터 바느질은 여인에게 부덕과 말씨, 김쌘들과 더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여인의 바느질 한 땀 한 땀에는 남다른 정성과 염원이 깃들었다.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 또한 정성을 다해 간직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바느질이 여인들의 일상생활이었던 만큼 바느질에 필요한 일곱 가지 벗어 얹힌 글, 일화, 민담과 금기, 야화, 상징, 등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로는 바늘, 자, 누비밀대, 골무, 가위, 인두, 인두판과 다리미 등의 재봉도구를 비롯해 받질고리, 바늘집, 바늘쌘, 바늘꽃이, 실침 등 정리도구가 있다. 그 중 특히 바늘, 실, 자, 인두, 다리, 골무, 가위는 규중 여인의 일곱 벗으로 꼽아 "규중칠우"라 할 만큼 소중한 여겨졌다.

3. 미적가치와 조형적 융합적 특징

여인들은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구도적인 방편으로 바느질과 자수를 통하여 자신의 회구를 반추했으며 그들의 미의식의 총체적인 규방용품은 단순히 물질로서의 형태가 아닌 정신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식 즉 미적 가치를 집약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술 세계는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혼성과 융합이다. 현대적 조형디자인은 조형적 창조에 모든 예술영역을 통합,

융합시켜는 활동으로서 새로운 형태를 대중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

바느질 쓰이는 도구			작업 정리도구		
종류	사진	내용	종류	사진	내용
바늘과 바늘통		조선시대에는 죽침, 골침과 함께 철침을 바늘통에 넣어 많이 사용함	바느질 상자		두꺼운 장지류, 백지를 0.3cm 정도의 두께가 되도록 배접하여 사각, 팔각, 원형등의 상자로 만들
실		조선 후기의 석주선 박물관 소장의 오색 견사 일 덕은공주(1822-1844, 조선23대 순조의 3녀) 돌 때 부명당수를 축원하는 뜻	실침		형태의 길모양은 가로 16cm~20cm, 세로 27cm~28cm, 두께 2cm~5cm가량의 보통 책처럼 되어 있다.
자		재료와 가공의 성격에 따라 화각척, 나전 축척척, 흑칠척, 주철척, 죽척, 목제척으로 분류 됨	실패		실을 길어 두는 것 일명 "실구리", "실감개"라고도 한다. 실을 그대로 말아 실꾸리로 하여 쓰면 실이 영커 불변했으므로 사용 편리하게 함
인두		방형의 인두는 형태상 코끝이 올라간 형과 유선형 인두의 중간 형태로 보인다. 이 화여대에 소장 길이는 34.5cm이며, 인두머리는 길이 6cm, 너비 1.8cm이다.	바늘꽃이		바늘방석이라고도 하며, 바늘을 꽂아두는 작은 물건으로 속에 솜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을 넣어 형견조각을 씌워 만듦.
다리미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크게 변화될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는 약간 변형되어 다리미의 전이 없어지고 운두가 비스듬히 경사지게 되었다.	바늘집		바늘겨레라고도 하며 바늘을 넣어 몸에 달고 다니는 도구로써 여러 가지 문양으로 장식되어 노리개라고도 한다.
골무		바느질할 때 땀뻘손가락에 씌워 끼는 물건이며, 손바느질에 반드시 필요한 공구로써, 주로 감침질을 할 때나 바느질이 들어가기 힘든 옷감에 사용된다.	가위집		녹슬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가위 집에도 여러 가지 길상문양을 수놓아 여인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가위		옷감을 자르거나 베는데 사용 형태는 좌우 대칭형으로 조선 후기의 형태이다 재료는 대개 무쇠와 백동으로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든	자집		재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넣어 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3.1 조형, 디자인, 융합의 의미

- 침선도구의 조형 형태는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칭형, 비대칭형, 평면적, 곡선적, 기하학적, 유기적, 반복적, 공간적, 입체적,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 시대에 여인들이 사용이 가능하고 실용성, 미적 아름다움까지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 침선도구의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실용성, 유기적, 통일성, 전통성, 등 소박하고 단아하지만 절제된 안정감, 전위적인 미와 전통미의 조화,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장신구 표현하고 있다.
- 침선도구의 융합적 측면에서는 재료의 특성상 한계가 있으며, 철, 나무, 천등으로 사용된 침선도구의 딱딱하고 소박하였다. 이러한 면을 장신구로 표현하기 위해서 금속(금, 은, 동)과 보석 등을 융합적 조화와 결합을 통해 딱딱함, 소박함을 좀 더 부드럽고, 세련미, 단아함, 미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2 미적가치 디자인을 위한 융합

규방문화는 옛 여인들이 거주하거나 문화 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삶을 바느질로 영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인들의 침선도구는 그들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기본이 되는 도구였다. 이런 소중한 도구를 응용하여 조형성과 실용성 현시대에 맞게 디자인과 융합적 장신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침선도구의 조형적 형태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형태적 융합을 통해 단순한 형태를 응용하여 대칭, 비대칭, 곡선, 직선, 원형, 입체적, 반복적, 공간적 의미를 담아 단순한 침선도구를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했고, 색상은 단색과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색과 조형적 형태와 조화를 위해서 조형적 형태와 보석을 접목을 하여 조형미와, 색상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표와 같이 시대적 침선구 유물을 알아보았다.

시대적 침선구는 재료적, 조형적 형태의 큰 변화가 없으며, 현대에 들어 문명적 발전과 동시에 기계화, 산업화가 발달 되어서 재봉틀이라는 기계가 발명하여 손쉽게 바느질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 시대에 있어서 가고 있는 침선도구들은 투박하고 정겨운 도구로서 조형적 형태와 선의 자연스러움이 있다. 형태는 정형화된 딱딱함이 아닌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으며 기능성, 실용성, 정교성, 조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문양과 색채는 일상 생활 용품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수고와 미적 감각과 더불어 여인들의 생활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인들의 희노애락을 엿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미적 아름다움을 조형적 융합 및 재료의 조화를 통해 서정적인 의미와 여인들의 마음

을 담고 자연에 대해 경외심이 내재된 은유적인 조형언어와 그 미의식의 한 단면이며 사상과 염원까지도 장신구로 표출하였다.

시대별 분류	종 류	내 용
고구려	금침	· 고대박물관에는 고구려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폭 0.1cm, 길이 5.8cm의 금사가 끼이진 고구려의 금침이 있다. 이 바늘은 동그란 바늘귀가 뚫린 형태로 그 후 고려대이나 이조대의 바늘과 그 길이와 굵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는 다름이 없다
고려시대	가위	· 형태에는 2가지가 있는데, 금속 한판으로 엑스재(X)형으로 꼬이면서 교차시킨 것과, X자형 교차점에 못이 박힌 것 두가지 모두 있었으며, 재료로는 철제, 동제 등이 있다
	다리미	· 청동제 다리미로 몸통 둘레에 3조의 돌기선이 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4각형의 손잡이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무녕왕릉 출토 다리미와 매우 유사하다.
신라시대	철제 가위	· 신라시대 분황사 석탑 내에서 발견된 석함 중에 들어 있던 원시형의 가위를 들 수 있다. 전체 형태가 a형으로 금속한판이 이어진 것이며 아래쪽 곡선부분이 가위날 부분보다 가늘게 되어 있다. 손잡이가 없어 좌우의 가위날 사이에 절단 할 물건을 놓고 가위등을 눌러 찔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신라	금동가위	·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이며 이 가위는 초의 심지를 자르는데 사용했다. 잘린 초와 심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날 바깥에 각각 반원형의 테두리를 세웠으며 손잡이 쪽에 방울무늬, 덩초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삼국 시대	골침	· 현재 유물로는 바로 만든 골침 있음. 길이 - 6.5cm~9.5cm, 4.2cm, 국립광주박물관
	가락바퀴	· 실장기의 보급은 가락바퀴가 도입되면서 시작함, 긴외오리 섬유를 빚을 먹이는데 적합한 원시적인 물레 같은 역할을 하였음, 사용법은 방추자의 구멍에 동근 막대를 끼워 축을 만들고 섬유를 축에 이어 회전시켜 꼬여진 실을 만들. 지름 : 3.4cm~7.7cm,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다리미	· 현존하는 고대유물 중 가장 오랜 것은 백제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청동제 다리미를 사용함. - 지름 : 49cm, 높이 : 5.5cm, 국립광주박물관
조선 시대	실	· 석주전 박물관 소장의 오색견사가 있음. 이것은 덕운공주(1822~1844, 조선23대 순조의 3녀) 돌 때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뜻에서 돌 상에 올려 놓았음.
	가위	· 고려와 대동소이 하며 다만 X형의 전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시형태의 사용이 최미해 진듯하다. 가위의 형태는 좌우 대칭형으로 손잡이가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형태이다.
	골무	· 이규경의(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골무를 정정이라고도 기록 됨 재료는 철검, 색비단, 가죽, 금속 등 있다
현대	재봉틀	· 초기의 재봉틀은 가정용 기계였으나 후에 중요한 공업기계가 되었다. 초기의 재봉틀은 1841년 프랑스의 바로탈미 티모니에가 프랑스 군대의 군복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제작했다. 재봉틀은 1832~34년경 미국 뉴욕 시의 W. 헛트(특허를 얻지 못함)와 매사추세츠 주 스펜서의 E. 하우(1846년 특허를 얻음)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이 두 기계에서는 바늘구멍이 있는 바늘이 호를 그리며 움직이면서 직물을 꿰매고 재도를 따라 아래위로 왕복하면서 밀실과 뒷실을 서로 얹어맨다. 현대의 재봉틀은 수많은 종류가 생산되었지만, 특정 공업용도로 사용되는 재봉틀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현대의 재봉틀은 보통 전기력으로 구동되지만 발판으로 구동되는 재봉틀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재봉틀 생산국은 중국이고 일본에서는 만능 지그재그 기계를 제작했다.

4. 작품

4.1 작품 - 물고기



No	TITLE	MATERIAL	STONE	SIZE(mm)
1	물고기	은(92.5%)	CZ	100*24*10

이 작품은 침선구 중 자의 형태의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다. 자의 특징은 재료와 기공의 성격에 따라 화각척, 나전흑칠척, 흑칠척, 주칠척, 죽척, 목제척등으로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비단을 재는 자, 무명을 재는 자, 마 종류를 재는자, 버선자, 수의척, 곡선을 재는 자로 구분한다. 이처럼 치수를 재는 도구로 여인들의 벗 중 하나의 도구였다.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가족들에게 정성과 염원이 흠뻑 담긴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데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모습이 여인들의 참 모습을 그려 보며, 다산, 부부금슬을 상징하고 있는 물고기형태와 자를 접목하고, 큐빅을 세팅하여 눈금을 포인트 및 유희가 리 착색을 통한 여인들의 체취 및 염원, 행복, 가족의 사랑의 뜻을 담아 제작하였다.

4.2 작품 - 여인의 벗



No	TITLE	MATERIAL	STONE	SIZE(mm)
2	여인의 벗	은(92.5%)	에메랄드, CZ	70*25*10

이 작품은 침선구 중 실패의 형태의 중심으로 디자인

하였다. 실패의 특징은 재료와 기공의 성격에 따라 나무, 대나무, 종이, 직물, 금속, 화각, 나전 칠등으로 분류 됐다.

실패의 조형적 미와, 선의 유연성, 공간 형태를 디자인 하여 서정적이고 단아한 이미지를 표출하였으며, 보석으로는 에메랄드를 세팅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주어 여인들의 희노애락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일곱 가지 벗이라 할 수 있다.

4.3 작품 - 설레임



No	TITLE	MATERIAL	STONE	SIZE(mm)
3	설레임	은(92.5%)황동	자황수정, CZ	60*57*10

이 작품은 인두 및 천의 형태를 이미지화 하여 디자인 하였다. 인두의 코끝을 조형적 형태를 자황수정이라는 보석을 가공하여 인두의 형태의 이미지를 주고 황동, 은의 재료적 융합과 조화를 면상감이라는 기법으로 활용하여 천의 의미를 형상화하였다.

보석과 금속재료의 융합적 결합 통한 서정적, 미적 아름다움과 여인들의 희노애락 속에서 삶의 모습과 문화적, 예술적 정서까지 표현하여 제작하였다.

4.4 작품 - 애환



No	TITLE	MATERIAL	STONE	SIZE(mm)
4	애환	은(92.5%), 금부, 와이어	진주	50*50*10

이 작품은 바늘꽃이의 조형적 형태를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 사각 형태로 하여 롤 프린팅과 프레스 기법을 응용했으며, 실과 바늘꽃이 형태, 와이어라는 타 재료를 융합하여 침선구의 소중함과 여인들의 정서적인 마음을 담고 있으며 서정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4.5 작품 - 추억



No	TITLE	MATERIAL	STONE	SIZE(mm)
5	추억	은(92.5%), 18k yg	토파즈	40*40*10

이 작품은 실패의 형태를 이미지화 하여 라이노 캐드로 제작하였다. 실패의 조형적 이미와 기학적, 대충 대비로 하여 실의 형상화하여 선으로 표현하고 공간적 의미를 주어 시원함, 정교함 세련미 등을 강조하였으며, 과거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작품으로써 제작하였다.

5. 결론

옛 여인들은 유교적, 도덕적 관념을 크게 받게 되어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관계로 여성들은 자연히 규방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부덕을 닦는 교양으로서, 또는 가정생활과 수복, 부귀, 다남, 등의 생활 염원 등을 기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염료나 옷감을 구하기 어려운 되다 값이 비싸서 의복 등을 만들고 남은 조각천을 모아 두었다가 하나의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실용적으로 발달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의 산업화, 기계화된 사회에서 바느질이 여성의 노동 밖으로 밀려났지만 자급자족 경제체제인 조선시대에 있어서 침선은 여성의 절대적 영역이었다. 전

통문화의 계승과 옛 여인의 염원을 담고 있는 침선구의 조형적 형태로는 기하학적, 선의 반복으로 공간적 형태, 대칭, 비대칭 곡선, 직선, 원형 등을 응용하여, 조형적 융합성 결합 및 재료의 조화를 통한 미적 아름다움과 서정적인 이미지를 브로치 장신구로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침선구의 형태를 선의 반복, 대칭, 비대칭의 조형성 균형을 통한 다양한 변화를 엿 볼 수 있으며, 공간의 간격을 주고 보석으로 세팅하여 가볍고, 단아하고 세련미를 극대화하였다.

둘째. 선의 대칭, 비대칭의 반복적인 이미지를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라이노 캐드로 작업하여 정밀구조를 통한 금속 제품의 고급스러운과 섬세함을 추구하였다.

셋째. 전통문화유산의 침선구를 통한 현시대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장신구의 유행을 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여인들의 벗이라 할 수 있는 침선구의 조형성 형태를 금속 은과 보석을 통하여 융합성 결합 및 조화를 통한 미적 아름다움을 엿 볼 수 있었다.

향후 규방문화의 침선구를 장신구 개발의 대상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 서정적 이미지, 융합성 결합 및 조화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재구성, 응용하며, 새로운 제작, 신기술과 재료의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장신구로 다양성과 대중화가 더욱 확대되리라 예원한다.

참 고 문 헌

- [1] 조영선, "조선시대 규방공예의 조형미를 응용한 금속 공예 연구", 국민대학교, 1988.
- [2] 정봉래, "조선조 규방용품을 응용한 장신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8.
- [3] 최진, "전통문화의 조형특성과 의미 해석 연구" 단국대학교, 2005.
- [4] 홍성덕, "우리나라 바느질 도구 소고-이조시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72.
- [5] 이수진, "조선 규방문화의 추상적 이미지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2005.
- [6] 김정미의 5인 "한국의 규방문화", 박이정, 2005.
- [7] 김정호, 이미지 "천연 염색과 규방공예", 2005.
- [8] 이어령,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 디자인 하우스 1999.

[9] 이미석, "우리규방문화와 침선소품" 한국학술정보, 2005.

[10]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이 재 호



- 저자약력 :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문화상품
- E-Mail : pp9027@hanmail.net

박 승 철



- 저자약력 :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문화콘텐츠
- E-Mail : scpark@kongju.ac.kr